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7. 9.(월) 총 5매(본문 5매)
담당 부서	철도운영과	담당자	• 과장 박지홍, 사무관 최영록, 주무관 이경련 • ☎ (044) 201-3970, 4632, 3973
	한국철도공사	담당자	• 처장 홍승표, 부장 서건귀, 과장 이명재 • ☎ (042) 615-3956, 3958, 3962
	(주)SR	담당자	• 부문장 정연성, 수석 김동한, 주임 한명오 • ☎ (02) 6484-4401, 4425, 4710
보 도 일 시		2018년 7월 1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인터넷은 7. 9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.	

고속철도 정기권,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

기존 정기권에 좌석지정형·기간선택형·횡수차감형 추가·8월중 판매 시작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한국철도공사(사장 오영식) 및 (주)에스알(사장 이승호)은 일일 생활권 확대, 근무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철도이용 환경의 변화와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**현행의 입석·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추가하여 ①좌석지정형, ②주말 포함 기간선택형, ③횡수차감형 등 새로운 고속철도 정기권을 금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.**
- 열차 정기권은 주로, 주중에 특정 구간을 매일 통학 또는 통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상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.
- 우리나라의 경우, 고속철도 선로용량이 부족하여 충분하게 좌석을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**현행 정기권은 입석과 자유석만 이용 가능하며, '17년을 기준으로 볼 때, 하루평균 고속철도 이용자 21만 7천명 중 약 7.2%인 1만6천명이 고속철도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다.**

* 하루 평균 고속철도 이용자 중 정기권 이용자('17년)
 - KTX 16.4만 명 중 1.3만 명(7.7%), SRT 5.3만 명 중 0.3만 명(5.5%)

* 1일 고속철도 정기권 이용자 상위 구간('17년)
 - (KTX) ①서울-천안아산 2,613명, ②서울-오송 1,483명 ③서울-대전(1,075명)
 - (SRT) ①수서-천안아산 569명, ②수서~동탄 541명 ③수서-지제 290명

□ 그동안 정기권 이용자는 10일, 20일, 1개월용 3가지 기간의 입석·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으로 45~60%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,

- 현행 정기권으로는 1) 입석·자유석만 이용가능하여 좌석을 지정할 수 없고, 2) 주로 주중에만 이용가능*하여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이용이 어려우며, 3) 주말부부 등 부정기 이용자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등 많은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.

* SR 정기권의 경우, 주중 이외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가능

《철도운영사별 정기권 현황》

	코레일	SR
종류	▪ 10일용, 20일용, 1개월	▪ 10일용, 1개월
발급 형태	▪ 스마트 승차권 (모바일앱, PC) ▪ 문자 승차권 (PC) ▪ 종이 승차권 (역 창구)	▪ 스마트 승차권 (모바일 앱)
할인율	▪ 10·20일: 일반 45%, 청소년 60% 할인 ▪ 1개월: 일반 50%, 청소년 60% 할인	▪ 10일 : 일반 45%, 청소년 55% 할인 ▪ 1개월: 일반 50%, 청소년 60% 할인
제한 사항	▪ 좌석 지정 불가 (입석 또는 자유석) ▪ 주중에만 이용 ▪ 열차 지정 없음 ▪ 이용횟수 제한 없음	▪ 좌석 지정 불가 (입석) ▪ 주중 + 주말 + 공휴일 이용가능 ▪ 열차 지정 (열차별 54매 제한) ▪ 이용횟수 제한 (1일 2회)

□ 이러한 정기권의 문제점을 감안, 고속철도 정기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하여 현행의 입석·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 이외에 ①좌석지정형, ②주말포함 기간선택형, ③횟수차감형 고속철도 정기권을 새롭게 도입한다.

《좌석 지정형 정기권》

□ 통근이나 통학을 위해 주중에 매일 정기권 이용하는 사람도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, 고속철도 좌석을 미리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.

- KTX의 경우, 현행의 입석·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좌석 지정옵션을 부여하여, 앞으로 고속철도 정기권 소지자는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, 정상운임의 15%*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.

* 서울~천안아산 예시: 정상운임 14,100원 → 좌석지정비용 2,100원

※ 단, 이용이 저조한 20일권은 폐지하여 10일권과 30일권으로 단순화

- SRT의 경우, KTX와 달리 현행의 입석 정기권보다 약 15%정도 가격이 비싼 좌석지정형 정기권을 따로 출시한다.

《SR 좌석지정형 정기권 가격 예시》

사용일수	(현행) 입석형 정기권	(신규) 좌석 지정형 정기권
10일	정상가격의 45~55%	정상가격의 60~70%
30일	정상가격의 40~50%	정상가격의 55~65%
수서-천안아산 30일권 구매 시 가격	220,800원	272,300원 (51,500원 ↑)

- SR은 한정된 좌석 공급을 감안하여 **횃수차감형 정기권을 우선적으로 도입**하고, 좌석지정형 정기권은 내년 상반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《 주말을 포함한 기간 선택형 정기권 》

-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주말 통근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을 포함한 기간선택형 정기권을 도입한다.
- KTX의 경우, 정기권 이용자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주말을 포함한 이용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, 좌석 지정 옵션을 부여하여 필요시 좌석 지정도 가능토록 하였다.
- 할인율은 현행 정기권과 동일하며, 좌석지정비용도 정상운임의 15%로 좌석지정형 정기권과 동일하다.

※ SRT의 경우, 현행 정기권으로도 주말 및 공휴일에 이용 가능

《 횃수 차감형 정기권 》

- 2~3회 강의를 하는 경우나 잦은 출장이 있는 사람, 주말부부 등 매일은 아니더라도 특정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**횃수 차감형 정기권**을 도입한다.
- KTX 경우,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일정기간(2~3개월) 동안 10~30회 이내(횃수는 이용자 선택)에서 좌석·입석·자유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정기권용 **모바일 할인카드**를 출시한다.

- 철도이용자가 정상운임의 5% 가격*으로 정기관용 모바일 할인 카드를 구입하면, 승차권 구매 시마다 15% 할인된 가격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.

* (예시) 서울~천안아산, 25회 선택 시 → 14,100원 x 25회 x 5% = 17,600원

- 횡수차감형 정기관 이용자도 일반 이용자와 동등하게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좌석을 예약할 수 있고, 좌석이 없는 경우 입석 또는 자유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. 한편, 해당 유효 기간 내에 이용횟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종 류	유효기간	카드가격	할인율
10~20회(횡수선택)	2개월(1개월 연장)	정상운임의 5%	15%
21~30회(횡수선택)	3개월(1.5개월 연장)		

- SRT의 경우,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 입석용 정기관을 도입한다.



- KTX와는 달리, 25% 할인된 10회 입석 운임가격으로 회수권을 일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고,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%를 추가 납부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.

종 류	유효기간	할인율
10회 (추후 확대)	15·30일 (기한 내 미사용 시 연장 가능, 각 3·5일)	25%

- 코레일과 SR 관계자는 “이번 정기관제도 개선으로 고속철도 정기관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상당부분 강화될 전망”이라고 밝히면서, “앞으로도 철도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, 많은 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도 서비스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《 고속철도 정기권 제도개선 주요내용 》

운영사별 상품	상품속성	좌석지정	주말사용	이용기간 이용횟수	비고
철도 공사	■ 현행정기권	X	X	10일 · 1개월	제도유지
	① 좌석지정형	○ (좌석지정비용: 정상운임의 15%)	X	10일 · 1개월	현행 정기권+ 좌석지정옵션
	② 기간자유형 [주말포함]	○ (좌석지정비용: 정상운임의 15%)	○	10~30일 내 이용자선택	신상품 (좌석지정옵션)
	③ 횟수차감형 [모바일 할인카드]	○ (카드가격 5% → 승차권 구매 시 마다 15% 할인)	○	10~30회 (2~3개월 유효)	신상품 (좌석·입석·자유석)
SR	■ 현행 정기권	X	○	10일 · 1개월	제도유지
	① 좌석지정형	○ (입석상품 대비 15% 가격인상)	○	10일 · 1개월	신상품 (‘19년 상반기 출시)
	③ 횟수차감형	○ (좌석지정비용: 정상운임의 15%)	○	10회 (15~30일 유효)	신상품 (좌석지정옵션)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최영록 사무관(☎ 044-201-4632), 한국철도공사 서건귀 부장(☎ 044-201-3958), (주)SR 수석 김동한(02-6484-442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